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희정* · 김태훈** 창원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이 갖는 해석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실용무용으로 무용학과에 편입하여 대학원을 졸업한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4 방향성의 내러티브 재구성에 준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력자원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이는 실용무용 전공의 확대,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소망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은 배움을 향한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이었고 자기 발견과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다. 셋째, 졸업 후 참여자들은 체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며 그동안 이룬 성장을 사회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용학과 내 실용무용 확산은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무용 전공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에게 전문성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자는 만학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 만학도, 무용전공대학원생, 실용무용, 내러티브탐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학의 양적 팽창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으로 만학도(晩學徒)의 대학교육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김광수, 2020). 만학도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공부하는 학습자'로 사회 통념상 대학 진학 적령기를 경과 하였다고 사료 되는 25세에서 65세의 학습자로 구분하기도 한다(임종해, 2015; 이정희, 안영식, 2007). 여러 대학에서는 만학도를 새로운 학습 수요자로 인식하고 '만학도 전형' 등과 같은 입학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만학도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새로운 학습 수요자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김병민, 2010).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50세 이상의 만학도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일반대학 만학도 전형 모집인원이 2019년에 비해 3배 늘어난 2589명에 이르렀다(한국대학신문, 2023. 6. 9.). 충청대 실용음악과는 2023년 입학생 38명 중 만학도가 28명으로 매년 만학도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김금란, 2023. 9. 20.). 대학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필요와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급 전문가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신현석, 2011)는 만학도들을 정규 대학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만학도들이 기존의 학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 창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교수, cooljoung@snu.ac.kr

**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kimth678@naver.com

더불어 사회 전체의 지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호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등 여러 학과에서는 만학도들의 대학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당사자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중 질적 연구는 만학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심층적인 이야기를 탐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별 만학도의 대학 생활 및 교육경험에 관한 질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공(김서현, 김영미, 2022), 신학전공(임은실, 신성숙, 2019), 간호학(김미화, 조은하, 2022; 손세정, 김현정, 2017), 보육관련학과(이소현, 모아하, 2017), 상담학과(이선화, 이기순, 2023)이 있다. 주제별 선행연구는 대학 진학 및 학업 동기(김광수, 2020), 대학 생활 적응(이정희, 안영식, 2007), 개인의 성장 및 자아실현(김계순, 김명찬, 2019), 생애사(김서현, 2022; 김정민, 최연실, 2014)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만학도의 대학교육이 취·창업에 대한 기대, 노후준비를 위한 재취업의 기회,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취업 관련 동기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한 성장, 새로운 삶의 희망, 자아실현 등과 같은 개인의 성장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만학도들에게 학업적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여러 학과에서는 만학도의 성공적인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필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체능 전공에서는 헬스케어 만학도의 삶과 여가에 대한 연구(김도진, 2023)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실용무용이 대학교육에 포함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용무용 전공으로 대학교육에 유입되고 대학원 진학 또한 증가하고 있다(문수현, 박혜진, 김영미, 2024). 대학 실용무용 관련 연구들은 학문으로서의 실용무용의 가치 및 현황에 관한 연구(강혜련, 2020; 김영란, 최경호, 2010)뿐만 아니라 실용무용 대학생의 학과적응(박정옥, 2022), 진로(구하늘, 안병순, 2024), 대학교육에 관한 실용무용 전공자의 인식(안지형, 김운미, 2018), 교수법에 따른 학생의 학업지속(김수산나, 안귀호, 2023) 등 교육 대상자 중심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대상자 중심의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 경험, 요구, 특징 등을 파악하여 교육 정책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실용무용 대학원생에 관한 연구는 문수현 등(2024)의 연구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문수현 등(2024)은 실용무용 전공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에서부터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 대학원 학습 경험의 의미를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실용무용 전공 대학원생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들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실용무용 전공 대학원생의 대학원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연구 수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대학원 경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학에서 인간의 경험은 탐구대상인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강현석, 2007), 교육주체에 관한 심층적 이해는 적절한 교육적 처지로 이어질 수 있다(박병기, 김지영, 박현아, 김영미, 2015).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중점을 두고 경험이 만들어낸 의미에 주목하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Bruner, 1986) 많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박병기 등, 2015; 염지숙, 2002). 본 연구 결과는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만학도의 학업 경험과 삶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만학도들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 지원 마련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는가?
 둘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무용학과 대학원 졸업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된 경험(storied experience)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김광수, 2020; Clandinin, 2013).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개인의 경험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관계, 시대적 맥락 등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한다(김영천, 2013).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으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만학도들의 진학 동기와 대학원을 통한 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여 경험의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place), 사회성(sociality)의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내적 지향, 외적 지향, 과정 지향, 미래 지향의 4 방향성의 내러티브 재구성에 준거하여(Clandini, 2013)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며 연구 방법론적 목표에 접근하기 용이해진다(홍영숙, 2020; Clandinin, 2013). 본 연구자는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시작했다. 졸업 후 연구참여자들을 만나 그들의 대학원 생활과 졸업 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연구자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만학의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이는 본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만학도에 관한 내러티브 선행연구(구유정, 오석영, 박수연, 2021; 김광수, 2020)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연구참여자의 대학원 선택과 과정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의 상호작용(Clandinin & Connelly, 2000)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사회문화적 구조와 관계 속에서 연구참여자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 동기와 성장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출강하는 학교에 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생들이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수업을 하는 2학기 동안 교수자와 학생으로 만났고, 졸업 후에는 선·후배로 5년째 관계를 이어오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두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용학과 진학을 하지 않고, 대학에 실용무용 전공생이 확장되던 2000년 후반에 각각 40세, 52세에 실용무용 전공으로 무용학과에 편입하여 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무용이 순수무용 중심의 엘리트 무용교육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교육과 실용무용으로 확장되는 2000년 이후 늦은 나이에 무용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보통의 무용전공자(순수무용 전공으로 무용학부를 졸업한)와는 다른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무용전공 시기와 전공유형에서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진학동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학위에 도전하는 점에서는 동질감을 느꼈다. 연구자는

참가자들과 이러한 경험을 나누면서 공유된 경험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공유된 경험적 공간은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질을 높인다(Clandinin, 2013).

표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	학부 전공	석사	박사
이신희	여	49	실용무용	일반대학원 무용전공	체육대학원 운동처방전공
박명실	여	59	실용무용	일반대학원 무용전공	체육대학원 운동생리학전공

3. 연구 과정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 (2000)이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현장 텍스트 구성

본 연구의 현장 텍스트는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에 관한 심층면담 내용이다. 심층면담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개월간 참여자별 3회, 회기당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면담 전 연구목적과 질문이 포함된 연구 계획서와 동의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연구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은 대학원 진학 동기에 관한 입학 전 이야기, 대학원 과정에 관한 이야기, 대학원 졸업 후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참여자가 사전에 제공받은 질문에 관해 생각을 정리한 메모와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2) 연구 텍스트 구성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각각 연구 주제와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방향성에 준거하여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를 분석하고 경험을 구조화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두 연구자는 각각의 분석 결과를 교환하여 읽은 후 텍스트에서 나타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론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 나갔다. 시간성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무용학과 입학전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면서 그 시간속에서 겪은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맥락을 잡았고, 공간성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살아 온 공간 즉 높은 진입장벽의 1990년대 무용학과 입학, 집안의 경제적 상황, 국내 실용무용의 확장, 대학의 입학 자원 다양화,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이야기를 드러냈으며, 사회성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위치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어떠한 틀로 재구성할지 결정하기 위해 내적 지향, 외적지향, 과정지향, 미래지향의 네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내적·외적 지향은 개인적·사회적 차원과 연관되는 것으로, 내적지향 및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가 무용학과에 편입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단계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느낌, 희망, 좌절, 도전, 신념 등을 중심으로, 외적 지향 및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조건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 심리적 변화, 스스로 찾은 의미 등을 중심으로 탐구하며 텍스트를 구성했다. 또한,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경험들이 모두 포함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텍스트는 두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연대기적 특징에 따라 무용학과 진학 동기, 대학원 과정의

의미, 졸업 후의 이야기로 상위 범주화한 후,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의 개별 이야기를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는 ‘모든 개별 인간의 경험은 다르고 고유하며 독특하다’는 전제하에서 개별 인간의 이해를 탐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홍영숙, 2020).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진행되었고 서면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수행 전 연구 계획서와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 방법, 의미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내용에 포함되는 연구참가자 익명성, 개인 정보,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연구참가자의 검토를 거쳤다. 연구에 연구참가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의미의 충실성(Grumet, 1988)을 높이기 위해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텍스트를 보완하였고 참여자의 연구 텍스트 검증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신뢰성(Bruner, 1986)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독립적으로 현장 텍스트를 분석하여 합의에 이르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2인에게 텍스트 및 연구방법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검토받았다.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학 교수 1인과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무용학 박사 1인의 동료자에게 각각 2회 검토(1회 비대면 전문가 회의, 1회 서면 검토)를 의뢰하여 내러티브 분석 절차, 분석 틀의 타당성, 범주화, 주제와의 연관성, 가독성에 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보완하였다. 동료 검토를 통해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연구참여자의 솔직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텍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왜곡과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텍스트를 수차례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하여 연구 텍스트에 기술된 표현과 단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표현에 동의하는지를 확인받았다.

III. 연구 결과

1. 이신희의 진학동기에 관한 이야기

1) 꺾여버린 무용학과 진학의 기회

이신희는 시골에서 태어난 춤을 좋아하는 아이로 학령기에는 막연하게 무용전공을 마음에 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전문 무용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지원이 어려웠던 이신희에게 1990년대 중반의 무용학과 진학은 다 다르지 못할 꿈이었다. 이후 사무자동학과에 진학하였지만, 무용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읽은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은 그녀를 늦은 나이에도 무용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과 흥분으로 고취시켰다. 본격적인 무용학과 입학의 위해 렛슨을 받고, 비용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기울어진 집안 형편으로 그녀는 다시 무용학과 꿈을 접어야만 했다.

“홍신자 선생님이 늦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무용을 배울 때만 해도 어릴 때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 책(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이 저한테 자신감을 주었어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2) 요가로 시작된 자아실현의 여정

이신희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기실현 욕구는 잠재해 있었는데 우연히 시작한 ‘요가’를 통해 구체화 되기 시작한다. 이신희에게 요가는 ‘춤 대신 나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요가 지도자로 성장한 이신희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면서 전문성 함양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후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각종 워크샵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기계발에 매진한다. 이신희에게 ‘요가’는 자신이 소망한 일을 스스로 성취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첫 자기실현이었다. 그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신희는 자기실현 욕구가 강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향이 현재에 안주하는 삶 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때 요가를 만났는데 이걸 뭐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 내가 무용을 하고 싶었던 그 에너지 그게 이제 요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거죠. 그래서 2003년부터 요가에 완전히 빠졌죠. 이것은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이렇게 내려준 선물이다.” (1차 심층면접, 2024. 2. 4)

“움직일 때 나는 움직임에 빠져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기전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전문가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워크샵을 엄청 많이 다녀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요가 전문가로서의 내·외적 성장 욕구가 충족되고 나니 ‘춤’에 대한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라면 스포츠 센터의 방송댄스, 사설학원의 에어로빅, 재즈댄스 등 어디라도 달려갔다. 그녀가 춤을 시작한 2010년 즈음은 한국에 실용무용이 확산되는 시기로 대중들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무용을 접할 수 있었고, 사설 기관에서는 무용 관련 전문가양성반이 성행하던 때였다(이해준, 정시현, 2017). 이신희는 20대 춤을 향한 자신의 열망이 이렇게 충족될 수 있음에 희열을 느꼈고, 온 마음을 다해 춤 수업을 받았다. 이런 그녀에게 사설 기관은 전문가 과정 및 자격증 취득을 권유했다. 이신희는 요가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의 강의를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이라는 조건을 요구받음에서 오는 허탈감과 개인의 열정이 사설 기관의 영리 추구에 소비되는 것 같은 회의감을 토로하면서 춤에 관한 자격은 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무용학과 편입을 결심한다. 그녀의 대학 편입 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추구적 목표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위 취득을 위한 도구적 목표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가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춤이 추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시민 생활체육관 방송 댄스. 오전에 두 타임 수업하고 춤추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요가가 좋았지만 나의 100%를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춤추고 하면 희열을 얻고. 그래서 춤을 배우겠다고 학원을 뒤져 가나다 무용 센터에 갔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깐 선생님이 이제 전문반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즈댄스 자격증도 200만원 주고 땀고, 헬스를 좀 하니깐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뭐 100만원 달라고 하고 하니깐. 그런데 또 전문가반 등록비.... 뭐 하나 하고 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결국 돈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설 기관에 돈 안 쓴다. 공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3) 돌고 돌아 당도한 무용학과 학부: 자기 탐색의 시간

2015년 대학에서는 실용무용 및 특별 전형 등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무용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이신희는 40세 만학도로 무용학과에 편입한다. 약 20년 만에 꿈이 실현된 것이다.

“내가 편입을 할 거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무용학과를 가보면 어떨까. 그때는 무용과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가 편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무용을 계속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하다가 중단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교 선생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이신희는 무용학과 전공 수업부터 교양수업까지 대학의 모든 수업이 재미있었다. 밤을 새워가며 리포트를 작성하고, 학부 때부터 논문을 읽으며 열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했으며, 육아, 학교, 직장의 빠듯한 일정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그녀의 열정과 달리 한편에서는 그녀를 ‘학생’이 아닌 ‘만학도’로 보는 편견은 존재했다. 특히 듀엣으로 작품을 안무하는 팀 과제에서는 그녀를 피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입학한 대학이었기에 이신희는 배움과 성장에 집중한다. 대학 공부는 자신에게 강한 지적 추구 지향성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원이 석사 ‘학위 취득’과 더불어 배움의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용하고 관련된 모든 수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현대무용 수업에도 텀블링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해도 그래도 너무 재미 있는거예요...(중략)...교양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레포트를 하고 오전에는 또 (요가)수업을 가야하니까.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했어요...(중략)...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학생으로서 봐주지 않는 이런 뭔가가 있었어...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구요. 뭔가 조심스러운 학생” (2차 심층면접, 2024. 2. 21)

2.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의 의미

1)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

이신희에게 대학의 공부는 암기식 위주의 공부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공부였던 반면 대학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둔 공부였다. 주제에 관해 깊이 파고들고 연구자의 생각과 의견을 체계화시켜가는 대학원에서 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음을 깨달아간다. 이러한 대학원에서의 학업은 그녀의 자기 주도적 성향과 일치되어 자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기 성장의 시작점이 된다.

“이게 배움에 대한 갈망은요...이것도 증독인 것 같아요. 대학원 공부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게 많더라구요. 갑갑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랑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하는 거니. 처음에 공부를 해서 인정 받고 싶어하는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학점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치열했는데, 대학원에 와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단계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내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심층면접, 2024. 2. 21)

대학원 공부는 그녀의 내적 만족을 충족시켜주었지만 모든 과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안무법, 무대 레파토리와 같이 작품 실현과 관련된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원래 안무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는 등의 지적에서 자신이 순수무용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의기소침해졌다. 또한, 전문 무용인으로서 무용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무용학과에서의 이질감은 오히려 그녀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탐색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내 마음속의 춤은 아직도 여전히 식지 않는 불꽃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내가 무용인으로 살 수 있는 구도는 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저도 뭐 그런 것 바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는 무용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잘하는 요가와 결부해서.” (2차 심층면접, 2024. 2. 21)

2) 내 안의 작은 불꽃을 타오르게 한 학위논문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은 졸업의 필수조건이다. 논문을 처음 쓰는 대학원생은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신희에게도 주제 설정에서부터 자료 수집, 논문 작성까지 논문을 쓰는 과정은 외롭고도 힘들었다. 하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잡고 주도적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매력에 빠졌다. 점점 지적 충족과 만족감에 고취되어 갔다. 내적으로 동기화되었다는 것은 외적 보상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윤방섭, 1992). 이신희는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향한 자기 인식과 선호를 확인하면서 애초에 목표했던 자격을 얻기 위한 외적 동기는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내적 동기로 전환된다. 그녀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듯이, 그녀의 자기 주도적 성향과 내적 만족도는 논문 작성 단계에서 화룡점정을 이루고 그녀는 생각지도 않았던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논문은 처음부터 내가 주도자가 되어 내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움직여서 짜는 거 이에 나랑 딱 맞는 거예요. 매력 있어요. 처음에는 논문 형식도 모르고 했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고, 참고문헌 찾고, 맞춰 나가고 하는게 힘들었어요...(중략)..한 고비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너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해냈다는 그런... 그 만족도는 남한테 인정받는 만족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인정이었어요. 내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그 외적인 어떤 동기에서 제가 내적 동기로 옮겨간 것 같아요.” (3차 심층면접, 2024. 3. 8)

3. 졸업 후의 이야기

1) 모든 것을 걸었던 박사학위 그리고 혼란

이신희는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에게 무용학보다는 체육학이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기에 적절하다 생각했다. 44세에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석사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였기에 오직 공부만을 목표로 전일제 박사과정을 시작한다. 그녀는 전공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체육학과 전공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고, 기초부터 공부한다는 자세로 공부에 매진한다. 그녀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지적 추구 행동은 박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속 되었고, 학문적 성장에 대한 내적 만족은 커져갔다. 하지만 체육에서는 무용 전공이니까, 무용에서는 체육 전공이니까 라는 이중 잣대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을 떠올리며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을 느꼈다.

“박사는 진짜로 다 접고 들어온 거죠. 놓지 못하는 어떤 경제적인 구도도 손 때고 들어왔죠. 그런데...그러니까.... 여기서도 배 다른 자식, 저기서도 배 다른.....어느 구조에서든 무용학과 졸업이라는 게 엄청 특별함으로 인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여기서도...” (2차 심층면접, 2024. 2. 21)

2)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만학도 이신희에게 무용학과 편입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였고, 대학원은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었다. 박사를 졸업한 이신희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지만, 자신의 성향, 가치, 신념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학문 후속 세대로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 엄청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안정적으로 내 발 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중략)...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안일한 삶은 못살 것 같아요. 지금 5막을 시작은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3차 심층면접, 2024. 3. 8)

4. 박명실의 진학동기에 관한 이야기

1) 포기해야 했던 무용

박명실은 고등학교까지 한국무용을 전공한 무용학과 지방생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무용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무용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고 박명실은 당시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무용학과 진학을 포기하고 전문대학 환경관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학과 공부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여 졸업 후 사회적 인정과 성취를 이뤘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소망은 무용학과에 진학하는 것이었기에 이런 성취는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단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소문이 났어요. 기분이 좋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안 풀이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원래 무용학과를 가고 싶었으니까” (1차 심층면접, 2024. 2. 18)

2) 전문가가 되기 위해

199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었다. 박명실도 전문대학 졸업 후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다. 하지만 여성의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생활과 시부모님 봉양, 며느리, 어머니, 아내 역할 모두를 해내야만 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에게 부여된 내·외적 책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러 역할을 해내고 있던 박명실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의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운동 요법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유행하던 실용 댄스를 시작하며 다시 무용을 시작한다.

“피 안 부리고 시키는 일 다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밥을 한 끼 먹고 일할 정도였으니까. 집안 일을 못 하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케이스면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완벽하게 할 테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댄스를 했는데 너무 잘 따라 한다고 우리 무용하는 사람은 보면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단 들어와라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된 거예요.” (1차 심층면접, 2024. 2. 18)

그녀가 댄스 강사로 활동한 2000년 이후는 실용무용이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확대되는 시점이었다(이지혜, 2012).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박명실은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초기에는 동작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 주부, 노인, 대학교수, 전문직종 종사자 등 다양한 수강자들이 참여하면서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상위 기관의 강의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 학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무용학과 편입을 마음먹게 된다.

“동작 용어 쓰는 것 외 효능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아요’라고만 하지 자세한 설명이 잘 안되더라구요.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전달력이 없는 거죠.”
(1차 심층면접, 2024. 2. 18)

3) 꿈에 그리던 무용학과

2010년대 초, 대학 무용학과와 실용무용 전공 확대 추세에 따라 박명실은 2017년 52세의 나이로 실용무용 전공으로 무용학과에 편입에 성공한다. 가사, 생업, 공부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심리적 위축감과 컴퓨터 활용 기술의 부족함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점점 상황에 적응했고, 전공 수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자신감과 효능감이 커지고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다.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이 끼여서 애들 방해하고 학점 뺏어 먹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중략)... 쪽지시험 이후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점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석사를 해야지 하니까 학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1차 심층면접, 2024. 2. 18)

5.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의 의미

1)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공부

박명실은 전문성과 깊이가 있는 대학원 공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렵기는 했지만, 그녀는 무용 생리학, 해부학과 같은 자연 과학계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댄스를 통해 체험한 효과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다. 발표 수업을 통해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적용하여 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학업 초기에 가졌던 ‘전문성 함양’이라는 목적에 가까워지면서 자기 효능감은 더욱 고조된다.

“수업하면서 춤을 추고 밝아진 사람들이나 살이 빠지거나 갱년기를 잘 넘긴 사람들. 그런 수강생들에게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당당하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제 연구도 그렇고,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된 것도 그렇고 근거를 바탕으로 말하니까. 예전에는 춤이라고 하면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전문성이 바탕이 되니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2차 심층면접, 2024. 3. 10)

대학원에서의 학습은 박명실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그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고 삶의 많은 부분을 혼자 떠안으며 살아왔는데, 대학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이어진 만학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 획득과 더불어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주체성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애들이 엄마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때 되게 당당하게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요. 강의할 때 내가 주도자란 느낌 있잖아요...(중략)... 예전에는 속으로만 앓던 거를 조리있게 말하고 하니

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 좀 많이 달라졌다, 성격이 바뀐 것 같다고 하세요. 제가 말이 좀 많아졌나 봐요.”
(3차 심층면접, 2024. 3. 19)

2)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

박명실에게 석사 학위 논문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시간이었다.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방법까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중심을 잡아야 했던 그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외롭고, 고된 석사 논문 기간이었지만 박명실은 알아간다는 것을 나를 채워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석사과정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박명실의 석사 학위 과정은 자신의 존재를 성숙시키고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데서 오는 내적 충만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폐경을 주제로 잡으면서 의학 관련 논문이랑 서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지금의 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밸리를 하면서 너무 건강해졌잖아요. 주제에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논문들도 다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워서 논문 보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중략)...예전엔 영양제 하나도 내거는 하나도 안 사먹었어요. 다 아빠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나를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못다 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한번도 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온전히 막 투자를 하고 나를 일단 어떻게든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내가 나를 파악한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지식적으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나는 초라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2차 심층면접, 2024. 3. 10)

6. 졸업 후의 이야기

1) 무용 전공인으로서의 책임감

박명실은 석사과정을 통해 고취된 자신감과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생소했던 체육학과 과목들을 소화하기 위해 필수과목 외 타 과목은 청강까지 마다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다. 석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연구 설계 및 통계 과목을 수강하면서 박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체육학과에서 무용의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다. 이런 과정에서 박명실은 무용 전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무용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갔다.

“이제 무용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마우리족 축구 경기할 때 추는 춤을 보여주면서 체육이랑 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는 모르겠어도 이 영상을 통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발표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더라구요. 석사 때는 다들 무용을 전공하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무용 전공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뭔가 더 책임감이 들고,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차 심층면접, 2024. 3. 10)

2) 자부심과 허무 사이의 양가감정

학위 과정을 통한 박명실의 성장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고, 그녀를 더욱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이 곧 사회의 인정과 기회로 연결되기는 어려웠다. 박사를 졸업 한 박명실은 처음으로

학위가 무용하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 등과 같은 상위 기관의 강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목 축소 및 폐지 상황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동안 같고 닮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할 기회를 찾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박명실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나로 성장했고, 연구와 공부를 기반으로 한 자신감이 있기에 박사졸업을 또 다른 시작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하고 당당해진 것 같고 그래서 강의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사가 학위의 제일 마지막이라 끝까지 했는데...나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도 아깝다는 생각도 금전적인 것도 낭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이제는 활용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의를 하고 싶어도 무용과는 과가 많이 없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다들 학과들이 없어지고 하나까... 다른 학과에서는 ‘인간과 건강’ 이런 것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제 저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데...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이제는 회원들 보면 다 실험군으로 보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힘 들었는데 다시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올라 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끝은 아니예요.” (3차 심층면접, 2024. 3. 19)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탐구하였다. 연구문제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는가?”,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졸업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 조건과 그가 속한 환경의 외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상대주의적이며 관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홍영숙, 2019).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경험은 개인적 특성, 삶에서 형성된 맥락적 조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났다. 그 경험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은 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는가?”이다. 무용학과에 순수무용 전공만 있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박명실과 이신희는 지방이라는 공간적 한계와 경제적 사정으로 무용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접하게 된 실용무용을 통해 춤에 대한 욕구를 채워갔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간다. 2000년대 이후 실용무용의 확산은 그들이 다시 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이 무용학과 진학을 선택한 동기는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성장 욕구와 상위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었고, 상위 기관으로부터 ‘학위’라는 조건을 요구받았다. 이는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상위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신현석, 2011)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신현석, 2011)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들은 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했다. 그들에게 2011~2016년 대학의 실용무용 전공 확산(이해준, 정시현, 2017)은 무용학과에 편입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했다. ‘진학동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직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향상하거나 보다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할 목

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재충전형 학습자(recyclers) 유형(이소현, 모아라, 2017)으로 무용학과에 편입하였으나, 학사 과정에서 학문에 대한 즐거움과 배움을 통한 내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지적 추구 성향을 자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한 도구적 수단만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만학도들이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자기실현(홍아정, 2010), 학습에 대한 열망과 전문 능력 개발(이정희, 안영식, 2007), 오래된 꿈의 실현(김수을, 변진이, 2023)을 목적으로 대학교육에 진학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실용무용 전공자들의 대학원 경험을 보고한 문수현 등(2024)의 연구와 같이 학부에서 충족하지 못한 전문성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대학원 진학으로 이끌었다. 카렌 호나이(Karen Horney)는 자아실현은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Horney, 1950). 이러한 관점에서, 학위 취득을 통한 사회적 욕구 충족과 학부에서의 학업 경험을 통한 배움을 향한 잠재된 욕구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대학원 진학은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동기는 학력 자원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두 만학도는 학위 취득이라는 도구적 목표가 있었지만, 학부에서의 학업 경험을 시작으로 학문의 즐거움에 심취하면서 내적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박명실은 무용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은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대학원의 학업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와 같은 학습 방법도 자기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며 주체성을 세워나갔다. 이신희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추구 성향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업을 통한 내적 만족감이 자기 삶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다는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만학도들의 대학교육 경험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가며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 김정민과 최연실(2014)의 연구와, 성장하는 삶의 추구로 해석한 김수을과 변진이(2023)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석사 학위 논문은 이러한 자기 성장의 핵심 사건으로 작용한다. 문수현 등(2024)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무용학과 대학원의 순수무용 중심의 교육 환경은 실용무용전공 대학원생들에게 도전적인 환경이었다. 주제선정에서부터 논문 작성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두 만학도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순수무용이 아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실용무용을 주제로 선정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해 갔다. 그들에게 석사 학위 논문은 학위 취득을 위한 관계적 단계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실용무용의 의미와 효과성을 증명해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구 수행의 주체가 되는 학위논문 과정은 자신이 생각하는 학문의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이 되며 해당 주제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선행연구들(문수현 등 2024; 양다현, 2021)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은 배움을 향한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이었고,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기 발견과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 나갔다.

셋째는 “졸업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다. 두 만학도는 석사과정을 통해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를 깨닫고 체육학과 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 그들은 석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연구방법론과 체육학을 공부하면서 온 힘을 다해 학문의 탐구와 전문성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신희는 박사과정을 통해 자신이 갈 길은 연구자의 길임을 확신하였다. 박명실은 자신의 춤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획득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쌓았다. 하지만 무용전공 체육학과 대학원생이 그러하듯 전공 정체성 혼란은 그들을 힘들게 했다. 신주영(2018)은 무용전공 체육학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을 ‘경계적 정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경계’와 ‘무용인과 체육인의 삶의 경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박명실은 ‘학문과 교육의 경계’의 형태로 실용무용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체육학과 연계하여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신희는 ‘무용인과 체육인의 삶의 경계’의 형태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에 좌절과 허무를 느꼈다. 이러한 전공 정체성 혼란은 무용 전공 체육학과 대학원

생(신주영, 2018)뿐만 아니라 실용무용 무용학과 대학원생(문수현 등, 2024)에게도 나타났다. 두 만학도들은 박사 과정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사를 졸업한 이신희는 학문 후속 세대로서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박명실은 현장전문가의 길을 걷는다. 박사졸업은 학위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독립된 초보 연구자의 첫 단계이자 박사급 취업 준비생이기도 하다. 최근 대학 정원수 감소, 지방 대학의 재정난 등의 여파로 대학 강좌 수가 줄어들어 대학 강의를 쉽지 않다. 또한, 박사 졸업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만학도로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만학도는 대학 강의 및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벽과 마주하며 불안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위 과정을 통해 자아 성장과 전문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을 사회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만학도의 학위과정은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과 성장은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환경적인 맥락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이 무용학과를 시작으로 무용학과 석사와 체육학과 박사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은 학력자원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무용학과 내 실용무용 확산은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무용 전공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에게 전문성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학원은 지식 산업의 발전에 따른 석·박사 학위 고급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채재은, 변기용, 남수경, 최정윤, 2009)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무용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요에 맞춘 개방적인 학생 선발과 실용무용 전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만학도들의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만학도들에게 대학원은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를 넘어 학문의 탐구와 질 높은 전문적 지식 획득을 통한 자기 성장의 시간이다. 하지만 현재 무용학과 대학원은 주로 순수무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무용학과 대학원에서는 다양해지는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순수무용 중심을 교과 외 실용무용 및 인접 학문과 연계한 융합 교과와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 등의 교과 개선을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문 후속 세대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보다 계획적으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학도들의 학위과정은 기능적 지식 학습을 넘어 자기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교육자들은 만학도들의 성장 과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만학도들이 대학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와의 상담, 멘토링 시스템 등과 같은 심리적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더불어, 실용무용 전공 및 만학도 학생이 온전히 무용학과에 소속될 수 있고 무용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개방적인 대학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배경의 실용무용 만학

도의 경험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연구참여자가 전공한 실용무용은 2000년대 이후 확장된 실용무용으로 최근 무용학과에 포함되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를 전공한 학생들과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지역, 전공, 나이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혜련(2020). 국내 실용무용학과 현황분석을 통한 한류 문화 패러다임. **한국무용학회지**, 20(3), 105-117.
- 강현석(2007). 교육학에서의 내러티브 가치와 교육적 상상력의 교육. **국어국문학**, 146, 305-351.
- 구유정, 오석영, 박수연. (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생학습사회**, 17(1), 27-48.
- 구하늘, 안병순(2024).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 및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5), 430-438.
- 김광수(2020). 만학도의 진학 동기와 변화된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257-282.
- 김계순, 김명찬(2019). 중년여성 만학도의 성장욕구와 자기실현 과정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질적탐구**, 5(1), 109-137.
- 김급란(2023년 3월 15일). '대학 신입생=20세' 공식 깨지나, 충청타임즈.
- 김도진(2023). 헬스케어전공 만학도의 삶과 여가에 대한 소고. **미래기술융합논문지**, 2(1), 41-17.
- 김미화, 조은하(2022). 간호학과 만학도의 전공 과정 경험연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4), 19-26.
- 김병민(2010). **고등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수산나, 안귀호(2023). 교수 감성리더십이 실용무용전공 학생의 몰입 및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91(2), 21-36.
- 김수을, 변진이(2023). 간호학 전공 중년 만학도 여성의 대학 생활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6), 398-408.
- 김서연, 김영미(2022). 사회복지전공 여성 만학도의 대학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인문사회21**, 13(6), 4245-4260
- 김서현(2022). 60대 여성 만학도의 사회복지를 통한 자기실현 경험:Schutze의 생애사 연구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2), 99-133.
- 김영란, 최경호(2010). 무용의 발전과정과 현황조사를 통한 실용무용 개념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사업학회논문지**, 4(4), 1-8.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hotds**. 경기도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정민, 최연실(2014).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 연구: 삶의 영역, 전환점과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9(1), 1-29.
- 문수현, 박혜진, 김영미(2024). 실용무용 전공자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 질적 사례연구. **한국무용연구**, 94(1), 95-112.
- 박병기, 김지영, 박현아, 김영미(2015).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적용: 최근 5년간 연구의 내용분석과 하나의 실제 연구. **교육심리연구**, 29(3), 383-408.
- 박정옥(2022).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의 학과적응에 관한 환경 및 스트레스 결정요인 분석. **인문사회** 21, 13(6), 595-609.
- 손세정, 김현정(2017). 간호학과 만학도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501-520.
- 신주영(2018). 무용전공 체육학 대학원생의 정체성 형성과정. **한국무용학회지**, 19(1), 13-23.
-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1), 156-192.
- 안지형, 김운미(2018). 실용무용계열 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6(6).
- 양다현(2021). **특수체육 전공 대학원생의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염지숙(2002).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tt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이급란, 맹은경(2018). 맞춤형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학도들의 인식 및 요구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2), 727-753.
- 이선화, 이기순(2023). 상담학을 전공한 만학도의 박사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문화와 융합**, 45(3), 385-401.
- 이소현, 모아라(2017).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의 삶의 의미 탐색: 보육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10(3), 179-195.
- 이지혜(2012). **대중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실용무용교육의 활성화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정희, 안영식(2007).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평생교육학연구**, 13(3), 89-116.
- 이해준, 정시현 (2017). 한국 실용무용의 역사성과 효용성 고찰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7(1), 77-90.

- 임은실, 신성숙(2019). 신학전공 만학도의 대학 생활 경험 연구.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33(2), 99-125.
- 임종해(2015). 만학도 전형 입학생의 대학교육 경험과 의미에 대한 탐색-경기지역 C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재은, 변기용, 남수경, 최정운(2009).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홍아정(2010). 성인대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학연구*, 48(4), 159-186.
- 홍영숙(2016). 대학 편입학을 경험한 두 대학생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4(2), 99-126.
- 홍영숙(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81-107.
- 홍영숙(2020).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8(3), 7-28.
- 한국대학신문(2023년 6월 9일). 지방대학 만학도 모시기 안간힘.
- Bruner, J.(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met, R. M.(1988). *Bitter milk: Women and teaching*.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Clandinin, D. J.(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orney, K.(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The Struggle Toward Self-Realization*. W.W. Norton & Company.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Motivations and Growth Experiences of Mature Students Majoring in Practical Dance in Graduate School of Dance

Heejeong Joung* · Taehoon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erpretive meanings behind the motivations for graduate school enrollment and the growth processes of mature students majoring in practical dance.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individuals who transferred to the dance department majoring in practical dance and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and the four directions of narrative reconstru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ursued graduate studies to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academic resources. This wa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pansion of the practical dance major, societal demand for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and personal aspirations to fulfill unmet dreams. Second, for the participants, the dance department's graduate program was a starting point for new self-awareness through learning and a stepping stone towards self-discovery and growth. Third, after graduation, the participants enrolled in the doctoral program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eepening their expertise and striving to translate their growth into social achievements. The spread of practical dance within the dance department can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enhancement and self-realization for adult learners who aspire to major in dance, even if they have not received elite dance training. Graduate programs should embrace student diversity and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 that enhances expertise. Educators must make efforts to understand adult learners and sincerely respect and support their growth.

Key words : mature student, dance graduate student, practical dance, narrative inquiry

논문투고일: 2024.06.03

논문심사일: 2024.07.07

심사완료일: 2024.07.22

* Research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port Science Laboratory

**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Dance